

수출 556억 달러 '역대 2위'... 무역수지 18개월 연속 흑자

산업부, 10월 수출입 동향
9년만에 세계 무역규모 8위 도약
車·부품 제외 13개 품목 증가세 견조
수입 539억 달러... 37.8% 증가
“올 수출액 등 사상최고치 경신”

(10월 수출입 실적) (단위: 백만달러, %, 관세청)

구분	2020년		2021년		
	10월	7월	8월	9월	10월
수출	44,819(△3.9)	55,488(+29.7)	53,168(+34.7)	55,829(+16.7)	55,554(+24.0)
(일평균)	2,134(+5.2)	2,265(+32.3)	2,312(+28.9)	2,659(+27.9)	2,645(+24.0)
수입	39,094(△5.6)	53,658(+38.1)	51,565(+44.0)	51,623(+31.0)	53,864(+37.8)
무역수지	5,725	1,830	1,603	4,205	1,690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 무역 규모가 9년 만에 세계 8위에 다시 올랐다. 수출은 지난달까지 12개월 연속 증가, 8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 성장을 기록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경제회복을 주도하는 모양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10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55억50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대비 24.0% 증가했다. 수입은 538억6000만달러로 37.8%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16억9000만달러로 18개월 연속 흑자다.

수출 증가세는 코로나19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12개월 연속 증가했고, 작년 3월 +16.3%를 시작으로 8개월째 두 자

릿수대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수출 증가율은 40% 내외였던 지난 2분기보다는 감소했으나, 주로 기저효과 영향이며 기저효과 배제시 유사한 수준의 증가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평균 수출액은 26억5000만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26억달러를 넘어 지난해 9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다. 수출 단가는 15개월 연속 증가하며 12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 증가다. 반도체·디스플레이·컴퓨터 등 IT제품에서 시스템반도체·OLED·SSD 등 고부가 품목들의 단가가 증가한 것이 주요인이다. 수출 물량도 전년동기대비 6.0% 증가해, 단

가 상승에 이어 물량이 견조하게 수출 모멘텀을 뒷받침하며 균형있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출 금액은 월간 기준으로 직전 9월(558억3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2위로, 8개월 연속 월간 수출액 500억달러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최단기 수출 5000억달러를 달성하며 10월까지 누계 5232억달러로 지난해 연간 총 수출액(5125억달러)을 이미 넘어섰다. 연간 수출액은 6000억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실적 달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무역 규모는 10월 중 1조 달러를 넘어 서며 최단기 1조 달러를 달성했다. 무역

액이 1조달러 이상인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세계에 10개국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세계 무역규모도 전년대비 1단계 상승하며 9년 만에 8위로 도약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한국의 무역 순위는 지난 2012년 8위에 올랐으나, 2013년~2020년까지 9위로 떨어진 뒤 올해 1월~8월 기준 다시 8위에 랭크했다.

15대 품목 중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제외한 13개 품목 모두 견조한 증가세다. 반도체·일반기계·석유화학·철강 등 주력 품목과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품목이 모두 역대 10월 수출 중 1~2위를 기록했다. 자동차 수출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에 따른 생산량 일부 조절, 작년 10월의 높은 기저효과로 -4.7%를 기록했고, 이에 따라 차부품도 -1.2% 소폭 감소했다.

수출 지역은 사상 최초로 7개월 연속, 9대 지역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중국·미국·유럽연합·아세안 등 4대 시장으로의 수출은 모두 두 자릿수대 증가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수출 증가

는 14개월 연속 증가로 가장 길다. 신남방 수출액은 9월의 월간 기준 역대 1위를 한 달만에 경신, 미국·EU·아세안·인도 등은 역대 10월 중 1위다.

문승욱 산업부장관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충격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빠르게 반등해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국보다 빠른 수출 증가세를 바탕으로 올해 연간 수출액과 무역규모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류예로, 원자재 가격 급등, 부품 수급 차질 등의 수출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탄소중립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 무역과제들도 착실히 수행하면서 현재 수출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초일류 100년 기업 역사 함께 만들자”

삼성전자 창립 52주년 기념식 열어
김기남 부회장, 3분기 매출기록 축하

삼성전자가 52번째 생일을 맞았다. 올해에도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조촐하게 기념식을 진행한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 복귀 시기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1일 수원 디지털시티에서 창립 52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김기남 부회장과 김현석·고동진 사장 등 대표 3인과 주요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김기남 부회장은 창립기념사를 통해 3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축하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괄목할 실적을 달성했다는 것.

그러면서도 앞으로 전개될 초지능화 사회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도 우려했다. 미래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제품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박병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초일류 100년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

을지 자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영 환경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영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특히 김기남 부회장은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회사와 임직원이 함께 성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개방적이고 열린 회사를 만들어 나가자”며 “회사와 임직원이 함께 실천해야 할 중요한 가치인 준법경영에 노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이 창립 52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

하고, ESG 실천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지속 가능한 환경과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또 “인류사회에 공헌한다는 삼성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인류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가치 있게 변화시키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초일류 100년 기업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다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019년에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모처럼 창립 기념일을 축하했었지만, 국정농단으로 수감 후 가석방됐음에도 여전히 공식 석상에서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부회장은 그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모더나 백신을 최대한 조기 공급하기 위해 물밑 경영 중이었다고 알려졌다. 전자적 테스트 포스트(TF)를 구성하고 해외 인맥까지 총동원해 모더나 생산을 총력 지원했다는 것.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국내에 모더나를 조기 공급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조만간 경영에 복귀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법무부가 일찌감치 이 부회장 경영 복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프로포폴’ 투약 관련한 재판에서도 벌금형을 받는 등 사법리스크도 하나씩 처리하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

온·오프라인 맞춤형 개인쇼핑몰 창업

창업비용 99만원

나만의 맞춤형 개인 쇼핑몰 제공 평생 수익 창출

200여개 흥삼제품 +3만여개 인기상품 +자체상품 등록 판매가능

25년 역사 브레인 TV 방송국소유 핫터그룹

대한흥삼주식회사/㈜핫터라이프 T.010-4480-0045

G마켓·11번가 등도 참여... 최대 70% 할인

>> 1면 '역대급 축제, 코세페'서 계속

◆요즘 대세 '비대면 쇼핑' 할인 맹공 펼치는 온라인 유통업체

이번 코세페 기간 중 가장 다양한 행사를 펼치는 곳은 온라인 유통업체들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세페는 비대면 부분을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G마켓, 11번가, 롯데온, 인터파크 등 온라인업체 527개사는 최대 70% 할인 및 30% 할인쿠폰 제공 등의 이벤트를 펼친다. G마켓·옥션에서는 3

만여 판매자가 참여해 할인 품목 수만 3000만개에 이른다.

특히 최근 큰 인기를 끄는 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세일쇼가 행사 기간 내내 이어질 예정이다. 공영홈쇼핑, 롯데온, 롯데홈쇼핑, 인터파크, 현대홈쇼핑은 '라이브 세일쇼' 행사에 참여해 셀럽과 함께 하는 방송을 진행한다. 아울러 국내 우수기업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중국 최대 e커머스 플랫폼인 타오바오에서도 라이브커머스가 진행된다.

/김서현 기자 seoh@